

# TV 드라마의 젠더(Gender) 문제에 대한 성별 수용태도 연구

## Gender Differences in the Viewers' Attitude towards the Gender Issues in the Television Drama

이 자 혜

동서대학교

Lee ja-hye

Dongseo Univ.

### 요약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속의 젠더(gender)의 표현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젠더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 드라마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시청자는 어떠한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젠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남, 녀 성별 수용 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방송 드라마의 수용에 대한 젠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 I. 서론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속의 젠더(gender)의 표현 역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영한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SBS/김수현 극본, 정을용 연출)에서 성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 문제가 중심 소재로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응시(male gaze)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지는 내러티브와 영상 전략 통해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온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드라마의 방영 초기부터 종영 이후까지 사회 각계와 네티즌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려온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 소재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성별 수용 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일시(identification)'와 '관음증(voyeurism)'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동성애 드라마에 대한 담론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와 광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동성애 코드'는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동성애 소재의 작품들이 일련의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한 해석 방식도 다양하다. 드라마의 주 시청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동성애 소재를 지닌 드라마의 경우, 해당 드라마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글을 게재하거나, 등장인물들의 팬 카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이고 있는 것은 2-30대 여성으로, 이는 꽃미남 이성애자 배우들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 설명되는가 하면, 실제로 이성간인 인물들이 동성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이성임을 확인하고 해피엔딩으로 맺어지는 낭만적 서사

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2-30대 여성 시청자들의 정서에 소구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성애적 사랑지상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1]. <인생의 아름다워>의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된 이유는 제 주도의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의 대가족주의의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되기도 하며[2]. 남성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경우와 여성 동성애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의 서사 전략에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 동성애가 보다 배타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성애적 결혼제도를 공고히 하며 윤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3]. 결국, 대부분의 동성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접근은 서사 전략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이 되고 있을 뿐,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시청자(관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2.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작은 제목

1975년 멀비(Laura Mulvey)가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를 통해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정신분석학에서의 인간의 주체성 형성 과정과 연관하여 분석한 이후, 멀비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영화가 어떻게 남성적 응시(male gaze)를 생산, 재생산하는가의 측면은 검증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멀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시선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화가 주는 즐거움은 ‘보는 쾌락’, 즉 시각적 쾌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타인을 시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느끼는 쾌락인 절시증(scopophilia)과 라캉의 거울단계와 같이 스크린 속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완벽한 자신의 이미지를 느끼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부터 오는 쾌락이라 설명한다. 멀비는 또한 세 가지 방식의 응

시(카메라의 시선, 영화 서사에 내재한 시선, 관객의 시선)에 의해 남성은 관음증과 동일시를 통해 응시의 주체로, 여성은 응시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 진다고 주장한다[4]. 한편 멀비 이후 여성 관객의 수용 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는 여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연하게 공유하며,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인물에든 동일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5].

이러한 멀비와 로레티스의 주장을 토대로, 영화의 경우, 남성 관객의 즐거움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응시-관음증과 남성 주인공에 대한 나르시시즘-동일시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성 관객의 경우, 다양한 인물과의 동일시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최근 여성적 응시(female gaze)에 대한 연구와(비록 여성적 응시가 우위를 점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응시의 주체인 여성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영화에 비해 방송 드라마의 경우 여성 시청자가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업주의적 측면에서 남성 캐릭터 역시 응시 당하도록 재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인 남성적 응시 전략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의 수용자 이론을 방송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 매체간의 시청(관람)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타인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 공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모두 기본적으로 관음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personal media 시대의 드라마 시청 방식의 변화(선택적 응시 강화)와 대형 모니터와 HD의 보급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가 재현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의 수용자 연구를 방송 드라마에 접목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동성애 드라마와 성별 수용태도

멀비가 주장한 남성적 응시에 의한 쾌락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생산의 문제점은 주로 페미니즘적 영화 분석에 적용되어왔는데, 이는 여성 관객의 문제 뿐 아니라, 인종적 문제, 성적 소수자의 문제 등, 주류/비주류, 지배/피지배의 관계에서의 관객의 위치와 보는 쾌락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적 응시의 문제를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와 유사하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생산, 재생산하는 방송 드라마의 경우에 적용하게 될 경우, 남성은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관음증과 남성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즐거움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드라마와 같이, 시청자가 관음증과 동일시의 대상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경우, 시청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드라마에서 이성애/동성애 관계에 대한 성별 수용태도

| 종 류    | 남성 시청자  | 여성 시청자 |
|--------|---------|--------|
| 이성애    | 관음증/동일시 | 동일시    |
| 남성 동성애 | -       | 동일시    |
| 여성 동성애 | 관음증     | 동일시    |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이 남성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경우,으로써 남성 시청자의 경우는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의 근원인 관음증과 동일시를 충족시킬 대상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문에 남성 시청자의 경우 거부감의 형성과 더불어 시청 의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지속적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III. 결론

이상에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이론을 통하여 동성애 소재 드라마가 이성애 중심 드라마에 비해 유독 여성 시청자에게 소구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는 동성애 소재 드라마에 대해서, 서사 전략 분석만으로는 그 인기나 성공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동성애적 서사와 재현 방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또한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젠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남, 녀간의 수용 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성애 드라마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존재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 목적은 상기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수용자 조사를 통해 실제 남, 녀의 관음증과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하여 동성애 드라마의 수용에 있어 여성 관객이 관대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1호, pp.162-200, 2008.
- [2] 이선옥, “드라마와 동성애 담론”, 실천문학, 제99권, pp. 397-403, 2010.
- [3]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구조 :동성애에 대한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3호, pp.197-222, 2003.
- [4] Mulvey, Laura,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Vol. 16, No 3, Autumn, pp. 6-18, 1975.
- [5] Lauretis, Teresa De, “Desire in Narrative”, Alice Doesn't: Feminism, Semiotics, Cinema, Indiana University Press, pp.103-157, 1984.